

# 市, 아파트 청소·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나섰다

### 단지 10곳 중 3곳 휴게소 없고 직접고용 30%대 그쳐 주택조례 바꿔 휴게공간 마련해주고 시설 비용도 지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의 청소 및 경비근로자를 위해 광주시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2일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청소나 경비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업승인 시 경비 청소근로자의 휴게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용중인 공동주택의 휴게실이 지하

에 설치돼 있거나 지상에 설치돼 있더라도 환경이 열악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00만원까지 시설 비용을 지원해 쾌적한 휴게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시가 지난 8월 공동주택 청소 경비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42개 단지 중 30%인 310곳에서 경비·청소근로자가 휴게소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게공간을 갖춘 곳은 경비원 734곳(70.4%), 청소원 725곳(69.6%)만 확보했다. 조사 대상은 총수 5

총 이상, 전체 면적 660㎡ 초과, 아파트와 연립주택이다.

조사결과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 공간이 아예 없는 곳은 125곳과 128곳으로 나타났다. 조사 공문에 아예 답을 않거나 소규모 아파트로 청소원 등이 없는 등 확인불가 아파트도 각 183곳과 189곳에 달했다.

상당수 아파트가 경비실 한쪽에 침대, 간이 취사도구 등을 마련한 경우가 많은데 이 공간을 휴게 공간으로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 단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아파트 상당수가 휴게 공간을 지하에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원은 193곳(26.3%)이, 청소원은 무려 440곳

(60.1%)이 지하에 있다. 냉난방기가 없는 곳도 경비원은 244곳, 청소원은 이보다 100곳가량이 더 많은 346곳에 달했다.

청소원과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는 321곳(31%)과 399곳(38%)에 그치고 나머지는 외주(용역)업체나 확인이 불가능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 경비원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전용면적 85㎡ 이하에,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년에 단지당 2000만원씩, 모두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4개사 선정 광주시, 다우환경·휴먼퍼스트 등 인증서 전달

광주시는 지난 11일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주)다우환경, (북)무지개공동회 엠마우스산업, 행복을 나누는 커피협동조합, (주)휴먼퍼스트 등 4개사에 인증서를 전달했다. <사진>

앞서, 광주시는 올해 처음 사회적경제 가치를 실현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성공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공모를 추진했다. 이번 공모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터뷰심사 등 3차례 심사과정을 거쳐 4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경영, 판로, 해외마케팅 홍보, 품질향상 등을 위한 지원금 최대 2000만원과 각종 시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주)다우환경은 시설 및 위생관리 용역 사회적기업으로 청소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무지개공동회 엠마우스산업은 지적장애인들이 삶의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동기회를 제공하며 화장지, 핸드타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주)휴먼퍼스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어린이 마스크 등 유아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협동조합으로는 청년과 장애인의 카페 창업 지원 및 공동사업을 추구하는 행복을 나누는 커피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임찬혁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사회적경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며 “사회적경제 선도기업들이 사회적경제 광주 대표기업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220개 기업 참여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 내일 DJ센터서...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설명회도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7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대기업, 지역 중소기업 등 22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이 중 70여개 기업은 박람회장에서 현장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채용행사로는 (주)금호HT, 한국알프스(주), (주)오이솔루션 등 광주·전남 지역 유망중소·대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해 현장면접과 채용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정책 홍보와 진로 상담을 하는 청년존, 서류와 면접 컨설팅 및 계층별 취업 맞춤 상담존, 사물인터넷 및 VR 체험존과 직업선호도검사, DISC 성격유

형검사 하는 탐색존 등도 운영된다.

인사혁신처와 한전KDN(주)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블라인드 면접 채용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매칭관을 운영해 구인·구직자 간 사전 및 현장매칭을 하고, 이력서·면접클리닉을 비롯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 일자리 정책과 광주형 일자리 지역기업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고용포럼도 개최한다. 박람회 참여 기업별 모집 직종, 자격 요건, 근로조건 등 자세한 정보는 2017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www.gwjobfai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해바라기의 추억 지난 12일 해바라기와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룬 평모들을 찾은 광주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농기센터 제공>

## 해바라기 만발 평모들서 가을 만끽 市농업기술센터 15일부터 이틀간 가을마실 행사

해바라기와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룬 광주호수생태공원 주변 평모들에서 가을꽃을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평모들 일원에 2만㎡ 규모로 해바라기와 코스모스를 조성해 15일부터 이틀간 ‘평모들 가을마실 행사’를 개최한다.

무등산 자락 끝에 위치한 평모들은 김덕령 장관 생가를 중심으로 광주호수 생태공원과 가사문학관 환벽당, 취가정을 끼고 넓게 뻗어있는 충효동 일대 들녘의 옛 지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노란 해바라기와

한들한들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중심으로 쌀 체험관 등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 비가 익어가는 농로를 따라 늘어선 허수아비와 함께 평모들 풍경나들이를 하면서 마을장터에서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평모들 일대에 수레국화, 안개초, 꽃양귀비 등 봄경관작물을 재배해 친환경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불거리도 제공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광주복지재단 노인복지타운 등 회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티켓 할인 제공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장현)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 개최와 지역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사전·예약분 티켓을 할인 제공했다.

광주복지재단은 이를 위해 지난달 광주디자인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단에서 위탁 운영중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회원들에게 1만2000원인 티켓을 6000원에 할인 판매했다.

재단은 지난 1일부터 회원권 소지자에 한해 사전예매 티켓을 판매한 결과, 12일 현재 2000여매가 판매됐다. 또 타운 이용회원 동아리에서도 단체 관람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10여일에 달하는 추석

연휴동안 “고향을 찾은 손자·손녀들과 함께 할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복지재단 이용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광주디자인센터도 소득이 적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 실천 차원에서 이번 행사에 동참했다.

장현 광주복지재단 대표는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미래를 전망하는 작품들이 많아 어르신들이 손자들과 함께 관람함으로써 세대통합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노인과 장애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재단이 문화복지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각종모임·행사·세미나는 지리산 관광온천지구 **K호텔**에서!

★ K호텔의 5대 특징 ★

- ▶ 깨끗하고 저렴한 객실요금
- ▶ 넓고 쾌적한 대형 세미나실
- ▶ 전망좋은 바베큐 시설
- ▶ 무료로 사용 가능한 노래방 시설
- ▶ 직접 조리해서 먹을수 있는 식당
- ▶ 문의. 010-3605-5000